【서평】

Frederick Lewis Allen, *Only Yesterday*
박진빈 옮김, 『원더풀 아메리카』(서울: 엘피, 2006)

윤 수 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의 1920년대는 ‘경이로운’ 시대이다. 전후의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한 소비와 향락 속에 끝없는 번영을 확신하던 이상적 낙관주의와 당대인들의 정신적 빈곤에 대한 환멸에 가득 찬 회의주의가 공존하고, 금주법과 진화론 교육 금지령을 가능케 한 극단적 보수주의와 기존의 도덕률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었던 급진주의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던,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는 종종 “재즈시대”, “광란의 20년대”, “길 잃은 세대”와 같은 말들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렇게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한 “미국 역사상 특별한 시대”(15면)인 1920년대를 해석하고 서술하고자 한 동시대인의 시도이다. 1931년 첫 출판된 이 책은 1918년 11월 1차 대전의 종결로부터 출간 바로 2년 전에 일어난 1929년의 주식시장 대폭락까지를 다루고 있는, 저자의 말처럼 “아직 사람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16면) 쓰인 역사연구서이다. 그러나 동시대사 서술이 빠질 수 있는 제한적인 시야나 해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자인 프레데릭 루이스 알렌이 사망한 1954년까지 무려 50만부 이상 팔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출간되며 전문가와 일반 대중에게 읽히고 있다.

이 책의 이런 길고도 강한 생명력의 비밀은 무엇보다 1920년대 미국이라는 ‘특별한’ 시대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에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미 이 책의 강조점이 “대중들이 지닌 사고방식의 변화나, 사소한 사건들”(16

면)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역사서술 방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 혼란과 모순으로 가득한 1920년대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사건들의 발생과정과 배경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라보는 당대의 미국인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을 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당대의 풍경을 세밀화를 그리듯 구체적으로 되살려냄으로써, 그 안에 담긴 대중들의 심리를 파헤친다.

“만약 당신이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 미국의 어느 거리에 서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 클리블랜드나 보스턴 혹은 시애틀이나 볼티모어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 부부의 하루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 ... 미국인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21면)로 시작되는 이 책의 서두는 이제 막 19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는 독자들을 미국 어느 대도시의 필부필부(匹夫匹婦)인 스미스 부부의 눈과 귀를 통해 안내한다. 스미스 부인의 패션과 스미스 씨가 읽는 조간신문의 머리기사, 그들이 참석한 티파티의 풍경과 감상하는 음악과 연극은 그대로 1920년대를 구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 또한 휴전선 포일의 거리 풍경 묘사(44면)에서 드러나듯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생생한 풍속 스케치와 당대인들이 열광한 유행, 스캔들, 사상, 문화에 대한 풍부한 언급은 독자들에게 1920년대 미국의 분위기를 손에 잡힐 듯 실감나게 전달해 준다.

“대중들이 지닌 사고방식의 변화나,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한 시대를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은 그가 서술하고 있는 사건들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단지 한 평범한 여행업자의 조난 사건에 지나지 않는 콜린스 사건과 타블로이드 신문이 일으킨 스캔들인 홀-밀스 재판은 이 책에서 여느 역사적 사건 못지않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역사가의 시각에서 보자면 꽤나 별 볼 일 없는 ... 사실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246면) ‘사소한 사건’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따지기 이전에 대중들이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에 열광하고 집중했다는 사

실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소하지만 당대인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해 간다.

자칫하면 맥락 없는 파편적 일화들의 혼란스런 모음이 될 수 있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취하고 있는 위와 같은 서술방식은 단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인 1920년대 미국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 유행과 흐름들, 희망과 공포들이 한데 맞물려 1920년대라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낳았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혼란스런 사건들의 한가운데 놓인 대중들의 “정신상태”(427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요소는 다른 전체의 요소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어느 것 혼자서 미국의 생활상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즉, 그 힘들은 함께 했을 때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149면)는 저자의 언급처럼, 1920년대 미국이라는 소용돌이 속을 저자가 이끄는 대로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독자는 이 수많은 요소들이 외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개개의 사건들을 가능하게 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퍼즐을 맞춰가듯 이어지는 1920년대의 수많은 단편들은 사실 아무렇게나 뒤섞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드러날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위해 이들을 주의 깊게 배열하고 있다. 당대 미국인들의 “전염성 흥분의 물결”(246면)의 고조, ‘새로운 시대’의 끝에는 대공황이라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자는 대공황을 하나의 경제상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국 대중의 사고와 감정 주기의 정점”(426면)이라 해석하며, 따라서 그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대중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한 탐구와 수많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야기의 여러 갈래들을 연결 지으려”(16면)는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1920년대 미국 대중의 삶과 정신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살려 놓고 있다고 할 때, 그 ‘대중’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는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뉴욕 유수의

잡지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저자의 시야는 이 책에서 “철저한 백인 주류사회”(7면)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만다. 그가 빈번히 묘사하고 있는 빌린 호텔방에서의 밀주 카테일파티나 클럽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주말의 디너댄스와 같은 풍경은 같은 1920년대를 산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농민이나 하층민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생소하게 들렸을지 모른다. 1920년대의 엄청난 경제적 번영에 수반된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의 심화는 이 책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백인 중산층 이외의 다른 계층—노동자, 농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민자 등—은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920년대의 호황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엄청난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호황이란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었다. 저자는 1920년대 초 엄청난 기세로 일어났던 노동조합 운동과 이에 대한 기업가들의 대중선동, 적대적 여론 형성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확산과 실패가 실제 노동자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여성이나 이민 노동자 문제는 더더욱 저자의 시야 밖에 위치한다. 당시 아시아, 히스패닉계 이민노동자들은 미국 서부, 남서부의 비숙련 저임금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도 이미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있었지만, 1920년대 미국 사회에 팽배한 이민배척 사조는 결국 1921년과 1924년 두 차례에 걸친 이민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비유럽계 이민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저자는 KKK단의 부활과 같은 당대 미국인들의 히스테리적 불관용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배척의 대상이 된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경우와 같이 일관된 침묵을 유지한다. 이러한 저자의 침묵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농민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휴전 이후 끓이지 않은 인종 간 충돌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흑인운동 세력의 성장, 기술발전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폭발적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시장의 붕괴와 뒤이은 농업인구의 몰락 등 1920년대에 일어

난 엄청난 변화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저자의 무관심은 다른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그의 주의 깊은 관심과 비교할 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자의 태도 역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20년의 첫 여성투표와 1923년에 최초 제안된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낙태권과 모성을 둘러싼 1920년대의 열띤 논쟁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가능하게 했던 기나긴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고려의 부재는 무릎을 드러낸 치마에 과감한 화장을 하고 남자들에게 “자극적인 놀이 ... 네게 그것을 줄게”(155면)라고 속삭이는 플래퍼(flapper)들의 방탕에 대한 빈번한 언급과 대조되며, 1920년대 급진적 여성의 관심사를 단지 그들의 옷차림과 성담론의 차원으로 한정짓는 결과를 낳는다. 전기세탁기와 전기다리미를 통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여성이 “자기 자신의 삶”(142면)을 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며 “당시 미국 여성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멋지게 커트된 짧은 머리뿐”(152면)이었다고 말하는 저자의 태도는 여성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을 다시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역시 이 책이 지닌 부정할 수 없는 장점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알렌과 거의 같은 시기 1920년대에 대한 비교적 정통적인 역사서를 출간했던 역사학자 윌리엄 프레스턴 슬로슨(William Preston Slosson)은 이 책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단지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알렌은 역사책이 아니라 타블로이드 신문을 읽고 영화관에 가는 대중들이 관심 가졌던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을 단지 역사가 아니라 후대 역사가들을 위한 역사적 기록으로 만든다.¹⁾

1) William Preston Slosson, Rev. of.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Nineteen-Twenties*, by Frederick Lewis Allen. *The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Review* 18 (Mar 1932): 603.

슬로슨의 말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영웅들의 역사가 아닌, 시대의 흐름 속에 울고 웃었던 대중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은 전공자와 비전공자, 시대를 막론한 독자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동시에 매력적인 시대라 할 수 있는 1920년대에 흠뻑 빠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저자의 재기 넘치고 뛰어난 문장력은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프레데릭 루이스 알렌의 1920년대 기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면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원더풀 아메리카』를 읽는 독자들은 또 다른 즐거움을 덩으로 얻게 된다. 번역본에 첨가된 1,000여 점이 넘는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해설들이 바로 그것이다. 당대에 유행한 바지모양과 수영복 디자인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의 사진, 당대에 널리 쓰인 대중선동 포스터, 광고, 신문 삽화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들은 당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듯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해 준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말처럼 “책에서 다루는 시기를 전부 기억하고 있을”(16면) 독자들을 상정하고 쓰였기에 당대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 문화적 함의를 지닌 표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독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옮긴이의 친절하고 꼼꼼한 해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당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저자의 문장에 담긴 풍자와 깊이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놓치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출간된 지 이미 8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에서 미국의 1920년대를 다시 읽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원서와 굳이 다르게 붙인 “원더풀 아메리카”라는 번역본의 제목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번역본의 제목은 일차적으로 이 시기를 기억할 후대의 미국인들이 떠올릴 “매혹적이고 광기어린 시절의 추억”(450면)으로서의 1920년대를 지칭한다.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과 변화, 발전을 이룩한 미국의 1920년대는 그만큼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간 “미국의 풋풋한 모

습”(8면)에 대한 향수에 가득 찬 “원더풀 아메리카!”라는 외침은 이를 현대적 맥락 속에 옮겨 놓음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 문화, 정치적 발전모델이 되고 있는 동시에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신제국주의적 행보로 전세계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현대의 미국을 우리는 과연 “원더풀”하다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질 테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원더풀!”이 아닌 “원더풀?”이라고 되묻게 만드는 현대 미국의 모습이 그 틀을 갖춰가는 한 시대, 현대 미국의 발생기를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듯 세심하게 관찰할 기회를 얻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920년대를 지배했고 현대 미국인들의 삶 역시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 물질주의, 보수주의는 또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하기에, 이 책을 읽는 한국의 독자들은 1920년대 미국의 부동산 투기 붐, 적색 공포, 주식투자 열풍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끼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원더풀 아메리카』는 이처럼 미국의 1920년대의 ‘경이’뿐만 아니라 현대 미국의 ‘경이로움’, 나아가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했던 한 시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다.